

CREATE NEW FUTURE, WITH SIMPAC

SIMPAC과 SIMPAC메탈은,
SIMPAC으로 하나되어 새롭게 출발합니다.

오늘의 변화가 내일의 혁신을 이끌듯,
SIMPAC은 함께하는 변화를 통해
더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SIMPAC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더 큰 도약이 시작됩니다.



프레스BU 본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41 Tel. (032) 501-0114

메탈BU 포항공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Tel. (054) 271-8700
당진공장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Tel. (041) 360-0100

심팩스토리

SIMPAC STORY 2018 AUTUMN VOL.44



모두가 하나 되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심팩 스토리

SIMPAC STORY
2018년 AUTUMN

통권 44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8년 12월 17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지영훈 사원

02-3780-4923

yhji@simpac.co.kr

김유림 사원

032-590-2041

yurkim@simpac.co.kr

(주)SIMPAC프레스BU

김다희 사원

032-510-0040

daheekim@simpac.co.kr

(주)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주)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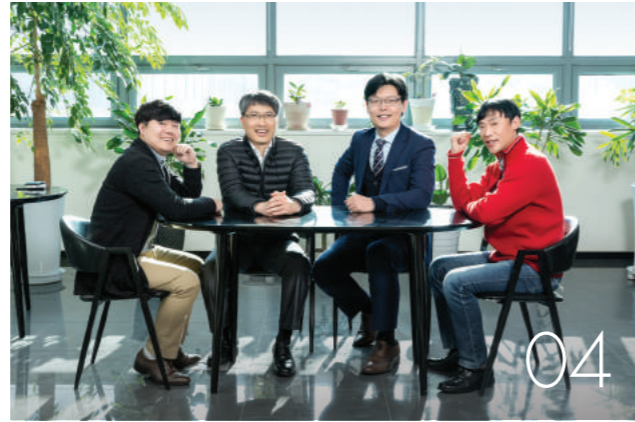
054-271-8724

kgsun@simpac.co.kr

이준기 과장

041-360-0122

jkleee@simpac.co.kr



SPECIAL THEME

- 04 경기 호황 너머의
장밋빛을 바라보다



SIMPAC IN

- 10 **SIMPAC NEWS**
SIMPAC그룹 소식
- 16 **ZOOM IN**
심팩만의 기술력으로
유럽을 두드리다
- 22 **현장을 가다**
SIMPAC그룹 창립 17주년 기념 어울림 한마당
- 30 **오늘은 제가 씁니다**
어느 가을 오후,
여유만만 티타임
- 34 **SIMPAC SURVEY**
자신감,
어디까지 알아봤니?
- 36 **기획칼럼**
#4 슬기로운 직장생활



SIMPAC 人

- 38 **워라벨 프로젝트**
4탄 Traveling Life
- 42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보내는 편지
- 44 **편지왔습니다**
SIMPAC인이 전하는 마음
- 46 **사진으로 말해요**
PHOTO DIARY
- 47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경기 호황 너머의 장밋빛을 바라보다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정설희 과장 산기영업팀 유금홍 사원
SIMPAC주물 소재영업팀 이세원 과장 소재생산팀 이충훈 과장

각고의 노력에 경기 호황이 더해져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네 명의 사우들은 하나같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유가 생길 법도 한데, 이렇듯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 이들이 생각하는 SIMPAC인더스트리와
SIMPAC주물의 현재와 미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일까.
그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SIMPAC Industries

& SIMPAC Foundry

SIMPAC인더스트리, 만족 대신 '내일'을 택하다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정설희 과장

정설희

올 1월 1일, SIMPAC인더스트리와 SIMPAC주물이 분리됐다. SIMPAC인더스트리가 맡고 있던 주물소재사업이 독립한 것. 산업기계 분야와 주물소재 분야 각각의 전문성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 일이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두 계열사는 나란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경영진의 판단이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같은 울타리에 있다는 건 의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의존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SIMPAC인더스트리라는 이름 아래 함께 일할 때는 후자의 경우도 때때로 벌어졌는데, SIMPAC주물과 분리 독립 후에는 그 의존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대신 경쟁력 높은 외주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죠.”

SIMPAC인더스트리 정설희 과장이 이야기했다. 그의 말마따나 SIMPAC인더스트리는 올해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기영업팀 유금홍 사원은 해외 수주가 상당히 늘었다고 말한다. 그가 맡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작년의 2배에 달하는 수주액을 달성했다. 꾸준한 성장세에 따라 중국, 태국, 베트남, 터키 등지로의 해외 출장이 많이 늘었다. 지난 10월에는 터키에서 열리는 산업기계 전시회에 참가, 해외 발주사 및 바이어들과의 접점을 한층 늘리는 데 성공했다. 아무래도 미국발 경기 호황세가 해외 수주액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다. 산업기계 분야를 업으로 삼는 기업들은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SIMPAC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좋아져야 세계 각지의 제조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이고, 그래야 SIMPAC인더스트리의 수주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SIMPAC인더스트리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유일한 요소인 것은 아니다. SIMPAC인더스트리가 최근의 경기 호황세를 발판 삼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SIMPAC인더스트리가 경기 호황세에 대한 대비를 매우 성실하고 훌륭하게 해 왔다는 뜻이다.

유금홍

그렇다면 SIMPAC인더스트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온 것일까. 유금홍 사원은 SIMPAC인더스트리의 '80년 기술력'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았다.

“SIMPAC인더스트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품질 경쟁력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봉신주작소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80년 넘도록 쌓인 기술력과 경험은 오롯이 저와 산기영업팀에 이식됐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기술 영업을 벌이고 있죠. 덕분에 단순히 산업기계를 파는 영업이 아닌, 고객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듣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원스톱 산업기계 영업'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생산팀에서는 공정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설희 과장은 '납기'와 '원가 절감'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다. 납기는 발주처와의 신뢰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고, 불필요한 공정 혹은 부분에 대한 원가를 절감해야 가격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 특히 입찰 경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요즘, 원가 절감은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설희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고루 갖춘 외주업체를 찾는 동시에, 해외 전시회와 외국 바이어를 통해 산업기계의 최신 트렌드를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산업기계 분야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진 느낌입니다. 더불어 구매 및 생산 관리의 개선점도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있죠. 생산 설비의 품질을 높이면서도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회사 이익 극대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생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유금홍 사원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안정적이지 않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언제부터 시작될지 장담할 수 없거니와, 수주액의 70% 내외를 차지하는 국내 시장은 해외와 달리 불황의 여파를 지속적으로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장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유금홍 사원과 산기영업팀은 발주처 다변화와 산업기계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수주 비율을 70%까지 높일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SIMPAC인더스트리 임직원들은 이렇듯, 현재를 넘어선 내일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SIMPAC인더스트리
산기영업팀
유금홍 사원

SIMPAC주물, 기회 뒤의 또 다른 기회를 정조준하다

그리고 2018년의 첫 번째 날, SIMPAC주물이 세계 주물소재 시장에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SIMPAC주물은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두 강대국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 몰려 있던 주물소재 수요가 주변국 경쟁업체로 일부 넘어간 것.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활황 기조까지 더해져, SIMPAC주물은 올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소재영업팀 이세원 과장은 지금의 상황을 낙관하지만은 않는다. 미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세원

“요즘 상황에 따른 영업 이익은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반사 이익이 언제까지 갈지 미지수이고, 이대로라면 미중 갈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설비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주액이 많아졌더라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한참 이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주액 침체를 막기 위해 소재영업팀 직원 모두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물소재 분야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었다. 역시 경기 불황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 같은 상황은 2016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견딜 수밖에 없는 나날이었다. 2016년 말, 마침내 세계 경제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쳤다. 기업 투자와 공작기계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여기에 들어가는 주물을 주로 생산하는 SIMPAC인더스트리 주물소재사업 부문도 미소를 되찾았다.

수주 물량의 드라마틱한 상승세는 SIMPAC주물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간의 업계 불황으로 꾸준히 인력 조절을 하며 생산 규모를 줄여 왔는데 작년 말부터 수주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력 보충 및 생산 효율성 제고가 현장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것. 소재생산팀 이충훈 과장은 점진적인 인력 보강과 신구의 조화를 고려한 인력 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하나씩 꼼꼼하게 풀어 나갔다. 덕분에 SIMPAC주물은 ‘최적화’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귀가 척척 들어맞는 생산 공정을 갖추게 됐다.

이충훈

“주물소재 같은 기초 산업은 사람의 일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결국 ‘사람이 힘’이라고 말할 정도로 직원들의 숙련도와 공정상의 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입 직원들에 대한 노하우 전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세대교체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들이는 인력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규 인력을 고루 배치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재생산팀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소재영업팀은 마음 놓고 일을 수주할 수 있었다. 특히 이세원 과장이 담당하는 미주-영아권에서의 수주액이 작년 대비 40~50% 늘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SIMPAC주물의 기술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 나아가 이 과장은 서유럽권 시장 공략을 위한 포석을 정성스럽게 깔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이 괜찮다는 후문이다.

이세원

“주물소재 분야는 사업의 특성상 발주처의 투자를 일정 부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처가 저희에게 발주하는 주물의 주형, 즉 거푸집을 제공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받았기에, 발주처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형을 제공한 주물소재업체를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물 제품을 수주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제품을 수주 받기 위해 노력했죠.”

이세원 과장과 이충훈 과장은 “경기가 좋을수록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물소재 분야는 세계 경제, 발주처 설비 투자 기조의 변화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SIMPAC주물의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발주처가 설비에 투자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경기가 불황이면 여기에 대한 발주처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 발주처와 수주 제품을 다양화해야 경기 불황을 이겨낼 수 있고, 다음 번 호황이 찾아왔을 때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세원 과장이 ‘위기’와 기회는 돌고 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세원

“기회를 잡고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기회를 잡았을 때 안심할 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잡기 위해 한층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를 잡아나가다 보면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기술력만으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SIMPAC주물
소재생산팀
이충훈 과장

SIMPAC주물
소재영업팀
이세원 과장



SIMPAC NEWS

2018 AUTUMN



대내외행사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지도부 만찬 간담회 참석

지난 12월 4일,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초청한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11월 19일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한 '막걸리 회동'이 성사된 것으로서, 최진식 회장을 포함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이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돼 만찬을 함께 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중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내년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산업현장 일선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최근 경영 현황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눴다.

이 총리는 "중견기업이 기술혁신·경영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중견기업이 앞장서서 어려움을 헤쳐나가 우리나라 산업의 희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공헌활동

심팩홀딩스, 어려운 이웃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1천만 원 전달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소재한 프레스 금속 조립 구조재 전문생산 업체인 (주)심팩홀딩스(대표이사 최진식)는, 지난 5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십자특별회비 1,000만 원을 서구청에 전달했다.

(주)심팩홀딩스의 적십자특별회비 기탁을 3년째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현 서구청장 및 (주)심팩홀딩스 심웅섭 부사장이 참석했다. (주)심팩홀딩스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매년 이웃돕기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 내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금을 기탁해 주신 임직원께 감사하다며, 구에서는 기업인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심웅섭 부사장은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전달된 적십자특별회비는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

'2018년 당진시 일자리 박람회' 참석

지난 10월 24일, SIMPAC 메탈BU 당진공장은 당진 신성대학교 태촌아카데미에서 개최된 '2018년 당진시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했다. 당진지역 대표 향토기업 40개사와 천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석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1:1 현장면접을 비롯해 취업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한 취업지원관, 구직 역량 강화 및 면접 상담을 위한 취업컨설팅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지원되었다.

이번 박람회 참석을 통해 우리회사는 생산직 인력 총원과 함께 당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했다. 당사 부스에서 다양한 인재들과 인사 상담을 진행하며, 당사에 맞는 인재를 발견하기 위하여 현장 면접을 진행하였다. 금일 면접한 지원자들을 선별하여 익월 당진공장에서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우리회사는 지역 내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훌륭한 인재 및 당사 홍보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수상

당진시 '제12회 상공인 한마음 다짐대회' 모범근로자 포상

11월 31일에 당진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12회 상공인 한마음 다짐대회'가 열렸다. 당진지역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화합을 위해 열린 이번 한마음 다짐대회에는 당진지역 45개 업체, 5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한마음 다짐대회는 체육경기와 근로자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려 기업체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회사는 창립기념일 행사 준비 및 조업 운영 관계로 체육경기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전에 진행된 모범근로자 표창식에는 참석하였다.

당사에서는 설비안전팀 설비반 최기훈 조장이 모범근로자로 선정되었으며, 25명의 근로자들과 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았다. 당진상공회의소 이영민 회장은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고 지역과 기업체 간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IMPAC NEWS

2018 AUTUMN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사회공헌활동

함사세 봉사단, '꽃다지합장단 정기연주회' 준비를 도와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함사세 봉사단은 10월 11일에 열리는 꽃다지합장단 정기연주회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함사세 봉사단은 17년도의 인연으로 매년 10월에 당진시 문예의전당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연주회에 매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꽃다지합장단'은 장애인당사자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 나아가 지역 사회와의 소통 및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13년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창단한 당진지역 유일의 장애인 합창단이다. 금번 봉사활동에는 현장직 직원을 포함하여 9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연 순서에 따라 무대 설치를 도와주고 몸이 불편한 합창단 단원들의 입장을 성심껏 도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봉사단원들은 일시불러하게 본인들의 맡은 업무를 무사히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주회는 합창단 공연 및 축하공연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우리 봉사단원들은 무대 바로 앞에서 대기하며,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공연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주회가 끝난 후 공연 뒷정리를 하며 이 날의 봉사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함사세 봉사단은 계속되는 인연으로 '꽃다지합장단 정기연주회'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이외에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SIMPAC 메탈BU 포항공장

사회공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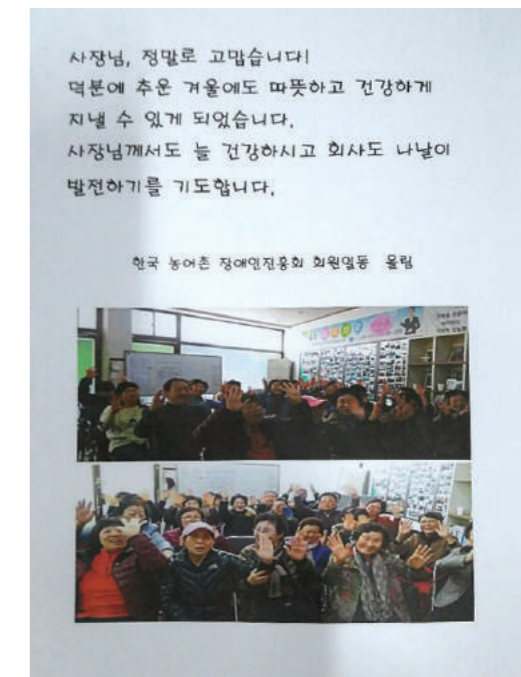
'심봉사' 회원 및 임직원 가족, 창립기념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 진행

지난 10월 20일,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추위가 시작되기 전 SIMPAC 메탈BU 포항공장 새내 봉사동호회 '심봉사' 회원과 그 가족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2014년부터 매년 창립기념일을 즈음하여 진행해온 행사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하는 행사로 더욱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 5년 동안 서른 곳에 11,100장의 사랑의 연탄을 나눴다. 연탄을 써보지 않은 직원 자녀들은 이 행사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의 실천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주말을 봉사로 보내는 소중한 추억은 덤으로 가지고 돌아갔다. 우리회사는 이번 사회공헌활동과 같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기획 및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농어촌장애인진흥회 교육장에 전기 냉난방기 설치

SIMPAC 메탈BU 송호석 사장은 장애우들의 인권과 능력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는 농어촌장애인진흥회 교육장에서 몸도 불편한 분들이 힘들고 위험하게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SIMPAC 메탈BU 포항공장 직원들과 함께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2월 3일, 송호석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안전한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 추운 겨울에는 사랑의 온기를,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드릴 수 있는 전기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었다. 그동안 매운 연탄 가스와 연탄을 교체하고 재를 버리는 수고와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농어촌장애인진흥회 가족들은 감사의 편지와 사진을 보내왔다. 앞으로도 우리회사는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11,100** 장
사랑의 연탄 나눔 (2014~2018)



SIMPAC NEWS

2018 AUTUMN

SIMPAC 메탈BU 포항공장

사회공헌활동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천만 원 전달

12월 17일 포항시청 9층 시장실에서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1,000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는 것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성실한 회사경영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납세만으로도 우리 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심팩에서 지역 인재들을 위해 귀중한 장학금을 기탁해 주어 감사하다"라는 말에 송효석 사장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해야 할 사회적 책임마저 포기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기업 활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라고 답하였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포항시 장학회에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총 5,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SIMPAC 프레스BU

채용박람회

'2018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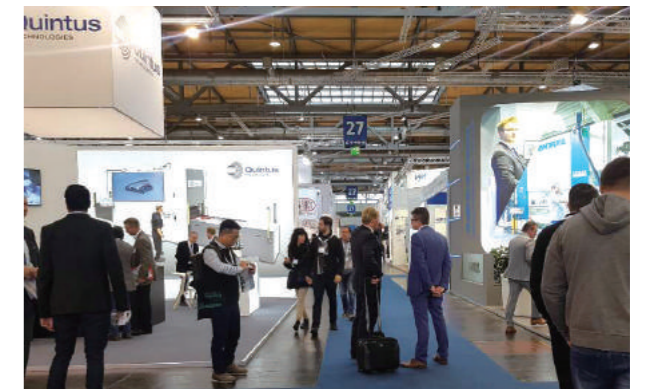
SIMPAC 프레스BU는 올해 하반기 이공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18일,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2018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당사를 포함한 월드클래스 300, 청년친화 강소기업, 장영실상 수상,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등을 받은 우수 중소·중견기업 약 100개사와 3,0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해당 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개최되는 행사로, R&D JOB 콘서트, 맞춤형 1:1 멘토링, 인재맞춤 컨설팅 관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에 SIMPAC 프레스BU는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부스를 설치해 연구, 설계 및 기술마케팅 등 여러 분야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회사 소개 및 채용 상담 등을 진행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원자들과 함께 채용 상담과 진로 및 직무 고민 해결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당사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관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 회사는 이후로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영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전시회

'2018 독일 하노버 전시회(EuroBLECH 2018)' 참가

SIMPAC 프레스BU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2018 독일 하노버 전시회(EuroBLECH 2018)'에 참가하였다. 'EuroBLECH 2018'은 국제 판금속 박람회로, 세계 주요국가의 금속 가공에 관한 트렌드와 장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박람회이다. 프레스 관련 업체는 27전시장에 집중 전시되었으며, CNC 선반, 가공기, 유공압 부품, 스프링, 공장주변기기 등의 업체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전시회 참가를 통해 최신 산업제품과 발전된 기술을 만나고, 산업동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Industry 4.0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에 IT시스템을 결합하여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공장의 기계, 산업 장비, 부품들은 서로 정보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기계마다 인공지능이 설치돼 모든 작업과정이 통제되고 사람 없이 수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품과 기술력 홍보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해당 전시회에서는 프레스를 전시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 채널 및 카탈로그를 통해 전시회 관람객을 대응하였다. 우리 회사는 커버링(Covering)이 된 모델링을 통해 성능뿐 아니라 외형상으로도 우수성을 잠재적 고객사가 될 수 있는 관람객에게 어필하였다. 우리회사는 이번 EuroBLECH 2018에 참가하면서 국내 및 선진사 프레스에 대한 견문을 보다 넓히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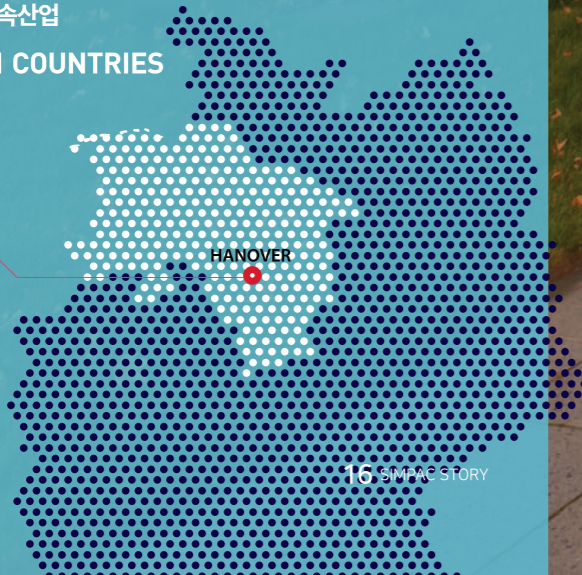


심팩만의 기술력으로 유럽을 두드리다

SIMPAC 프레스BU는 유럽 시장개척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인 "EuroBLECH 2018"에 참가했다.

Euro BLECH 2018

- 개최기간 2018. 10. 23~10. 26 (격년)
- 개최도시 HANOVER, GERMANY
- 산업분야 금속산업
- 참가국 41 COUNTRIES



EuroBLECH란

EuroBLECH는 1969년에 시작된 격년 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서 금속판금, 금속판작업, CAD/CAM, 용접, 표면처리 기술 등 금속 판금 산업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국제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EuroBLECH 2018'은 "Step into the digital reality"이란 슬로건 아래 미래 금속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세계 시장 동향 파악 및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다.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1개국이 8개의 전시관에서 1,500개가 넘는 부스를 열었다. 특히, 프레스 관련 업체가 모여 있는 27전시장은 심팩을 비롯해 SHULER, AIDA, FAGOR, SEYI, JIER 등의 우수 기업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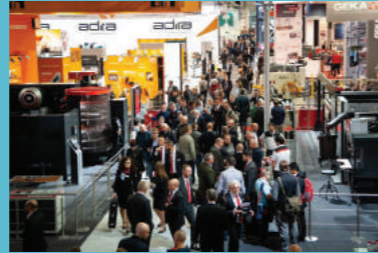
'EuroBLECH 2018' 핵심주제

'EuroBLECH 2018'은 근래 전 산업에 걸쳐 가장 큰 화두인 '인더스트리(Industry) 4.0'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 기술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변환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변화에 주목했다. 금속 산업 분야의 대표적 기업들의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기술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고객사가 원하는 미래기술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인더스트리(Industry) 4.0이란?

독일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하나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생산 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뜻함. '인더스트리 4.0'에서는제조업체들이 기존 산업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여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uroBLECH 2018 참가기



*** EuroBLECH 2018 참가단 :**

SIMPAC 프레스BU 고석지 차장, 송성강 과장, 안상규 과장, 김호현 과장, 김명호 대리, 이정민 대리, 강준혁 대리, 이정우 대리, 정지현 대리, 신홍식 대리

낮선 이에게 저절로 열리는 문은 없다. 무엇을 지녔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비로소 문은 열린다. 그간 심팩은 유럽 시장개척을 위해 다방면의 진입로를 모색해왔다. 쉽지 않은 일임은 예상했지만, 유럽 시장의 문은 생각보다 더 견고했다. 하지만 포기란 없었다. 심팩은 탄탄한 기술력을 선보일 안성맞춤의 기회를 찾아냈다. 바로 금속가공에 관한 세계적 트렌드와 장비가 한자리에 모이는 EuroBLECH, 국제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박람회를 찾은 심팩의 활약상을 들어봤다.

Q1 국제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는 어떤 자리인가요?

1969년 시작된 국제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는 금속 판금, 반가공금속판, 금속판 작업, CAD(컴퓨터 지원설계), CAM(컴퓨터 지원제조), 접합기술, 표면처리기술 등 금속 판금 전반에 걸친 신제품과 신기술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격년으로 개최되며 매년 4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죠. 5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금속가공 기술과 관련된 세계 최대 박람회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중국 등 세계 주요국 기업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최신 기술 동향의 잣대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박람회를 통해 금속산업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제품과 기술력 홍보로 기업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고객사 유치의 기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2 심팩에 박람회가 지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올해까지 총 4번에 걸쳐 박람회에 참가해왔습니다. 세계 시장과 최신기술의 동향을 알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유럽 시장을 개척하려면 시간과 비용투자라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큰 노력을 기울여도 시장에 완벽히 진출하기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심팩이 어떤 기술과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리는 데 박람회가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 비용, 접촉 가능한 고객 규모 등 여러 면에서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서기까지, 박람회를 거쳐 우리의 이름을 차근차근 알려가고자 합니다.





Q3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인 심팩의 활약상이 궁금합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EuroBLECH 2018'의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41개국 8개의 전시관에서 1,500개가 넘는 부스를 열었고, 어디를 가든 관람객으로 붐볐는데요. 프레스 관련 업체가 모여 있는 27전시장만 심팩을 비롯해 SCHULER, AIDA, FAGOR, SEYI, JIER 등의 우수 기업이 모여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주제는 인더스트리(Industry) 4.0으로, 이것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산업에 IT 기술을 결합해 생산시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으로의 진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직접 기계를 선보이기보다 관련 기술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알리고, 고객사가 원하는 미래기술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했는데요. 우리는 프레스 전시 대신 미디어와 카탈로그 중심의 응대를 펼쳤고, 현재 생산 중인 프레스보다 한층 깔끔하게 커버링한 모델을 선보여 고객사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의견도 진지하게 경청했구요.



Q4 시장의 판도를 바꿀 인더스트리 4.0의 대비책은 어떤가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시스템개발을 위해 2년 전부터 SPMS라는 전장품을 개발했고, 테스트를 거쳐 시판 중일 뿐 아니라, 제품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개발은 당연.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 사항과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개선작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후에는 심팩에서 판매한 제품의 핵심부품 내구 시간이나 소모품의 교체 시기 등을 사물인터넷과 측정 센서로 측정. 그 결과를 고객사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해당 데이터를 관리해 before 서비스 구현에 나설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본격화되면 인적 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A/S 기술력 보강에도 신경 쓸 계획입니다.



Q5 박람회를 통해 얻은 성과와 보완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성과는 선진 프레스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심팩이 나갈 방향을 찾는 기회를 얻은 게 아닐까 합니다. 현장에서 유명 기업인 M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만큼,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전시장을 사로잡았던 타 프레스처럼 판금 개선에 자동화 절곡기 등으로 제작한 부분을 적용해, 외관 품질도 높였으면 합니다. 특히 판금류가 눈에 띄게 화려한 프레스를 보고 나니, 당장 외관 개선작업에 속도를 내야겠다는 조바심이 들더군요.

또 3D 프린트나 프레스 관련 미니어처를 활용한 전시도 고민할 만합니다. 시선을 한 번에 끌 수 있도록 프레스 영상에 더 정성을 기울이거나, 프레스 설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홍보방법을 충분히 보완해, 다음 박람회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심팩이 되길 바랍니다.

MINI INTERVIEW

반성과 아이디어 동시에 얻어

안상규 과장 |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십 년 만에 찾은 박람회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세계 최고 프레스 기업인 SCHULER였습니다. 서보 프레스(Servo Press)를 시현하면서 한껏 멋을 낸 엔지니어가 직접 PPT를 진행하는 모습이 분위기를 압도하더군요. 자동차 판금류를 보는 듯한 프레스 외관에, 동종업계 중사자로서 반성도 했고요. 다행히 전시된 설비들을 통해 프레스 외관 개선으로 고민하던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현재 MC2 TYPE 외관 개선을 시행 중입니다.

고정관념을 되돌아보는 계기 돼

김명호 대리 | SIMPAC 프레스BU 기술지원팀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크게 다가온 건, 지금까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프레스 설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선진 업체의 프레스도 어느 정도 우리 프레스와 비슷할 거라 여겼는데요. 실제로 보니 외관부터 성능까지 많은 차이가 나더군요. 속을 쓰리게 한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제품의 품질을 높일 방도가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심팩 프레스BU가 가야 할 방향 찾아

김호현 과장 | SIMPAC 프레스BU 자동화팀
박람회를 다녀와서 제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는데요. 유형의 프레스와 무형의 인공지능을 결합한 사물인터넷이며 스마트 공장 구현이며... 앞으로 심팩 프레스BU가 가야 할 방향은 토탈엔지니어링(Total Engineering)이라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프레스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공장을 만들어주는 진정한 토탈엔지니어링을 실현했으면 합니다.

SIMPAC그룹 창립 17주년 기념 어울림 한마당

SIMPAC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시간, 도전하는 기업의 역사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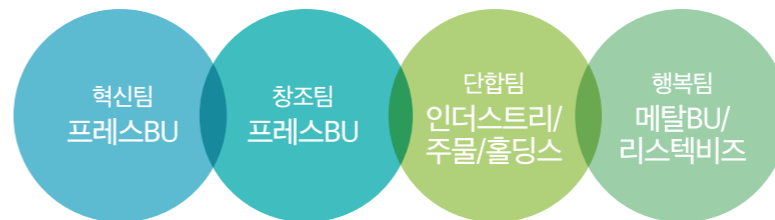
세상 모든 기업에 만만한 일이란 없다.
 호기로운 도전이 아쉬움만 남기기도 하며,
 반신반의하던 전략이 놀라운 성과를 부르기도 한다.
 예측하고 대비해도 늘 모자란 듯 쉽지 않은
 기업의 길. 심팩그룹은 그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와
 한국 대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왔다.
 매년 굳건한 모습으로, 탄탄한 실력으로 회사의
 가치를 증명해온 지 올해로 17년. 심팩그룹의
 창립 1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다.



한마음 한뜻으로 맞은 창립 17주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심팩그룹 창립 17주년의 기쁨을 두 배 더 만끽하고자, 2018년 11월 2일 561명의 사원이 충청북도 괴산군 보광산 자락에 모였다. 심팩과 심팩메탈의 합병이슈는 물론 리스텍비즈 인수까지 더해진 이번 창립기념 행사의 화두는 단연 화합.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몸으로 움직여온 심팩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한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맞고자 했다.

트래킹 중심의 기존 행사를 벗어나, 이번에는 단합의 상징인 체육대회로 창립을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사원 전원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한 것이다. 체육대회인 만큼 먼저 사업 부문별로 총 4개 팀이 꾸러졌다. 가장 많은 인원을 자랑하는 프레스BU의 혁신팀과 창조팀, 인더스트리/주물/홀딩스가 손잡은 단합팀, 메탈BU/리스텍비즈의 저력을 보여줄 행복팀까지. 각 팀명에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기업 가치와 모두 하나 돼 행복한 시간을 공유하자는 뜻이 담겼다.





뜨겁게 응원하고 불꽃 튀게 겨루고

고운 단풍을 관중 삼아 개회선언과 함께 시작된 첫 경기는, 직장인 고수들의 필살기가 난무한다는 족구였다. 매 경기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불꽃 튀는 승부가 펼쳐졌다.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이 모인 만큼 네트를 넘나드는 공의 위력은 만만치 않았다. 날카로운 공격과 빈틈없는 수비가 이어지기를 수차례, 지켜보는 이들의 손끝까지 짜릿해졌다. 막상막하 족구경기의 승자는 단합팀. 찰떡궁합을 앞세운 전략으로 첫 승리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운동장의 열기를 한껏 달구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경기와 응원에 힘을 쏟아낸 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마련한 선물은 맛난 한 끼였다. 즉석에서 구워낸 바비큐와 매콤한 닭갈비, 쫄면, 도토리묵까지 푸짐한 점심에 일명 기분 좋은 먹부림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쌀쌀한 날씨에 지칠까 오후에는 따뜻한 어묵탕도 준비해 먹는 재미를 더했고, 동료들과 나누는 반주 한 잔을 풀어줄 열끈한 육개장 저녁까지 부족함 없이 제공됐다. 경기 사이사이 체력을 보충해줄 과일과 간식도 푸짐하게 준비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심팩인이 택한 최고의 승부수는 협력

족구경기로 굳은 몸도 풀고 든든한 식사로 체력도 충전하고 나니, 본격적인 한판승을 벌일 시간이 다가왔다. 이듬하여 명랑운동회. 팔씨름,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단체 계주 그리고 번외경기인 임원 족구로 구성된 경기의 종이 울렸다. 어느 팀이 사전연습에서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문에 응원 소리가 더 우렁차졌다. 어느 팀에 괴력의 소유자가 있다는 정보에 새로운 전략을 짜느라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어보지 않고는 모를 일.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뉜 진행된 팔씨름에서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다. 특히 남자부 팔씨름은 팽팽한 자존심 대결의 장이었다. 팔 근육이 터지라고 인간힘을 쓰며 승리욕을 발휘한 끝에, 남녀 모두 행복팀이 우승을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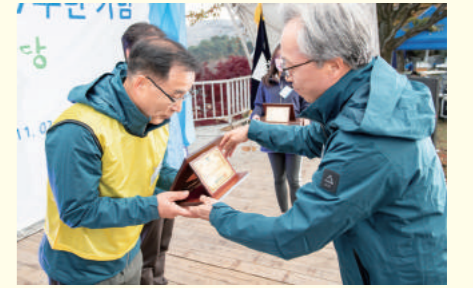
“첫 경기부터 엄청난 기 싸움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르겠어요. 팀원들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큰 점수는 아니지만 팀 순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뿌듯했고요. 승패를 떠나서 함께 어울리다 보니 내가 속한 곳이 여기구나, 우리구나 하는 소속감과 유대감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단합팀 여자부 팔씨름에 참여한 심팩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신재희 사원은 협동이 지닌 힘을 확인할 수 있어 더 즐거웠다고 말했다.

팔씨름 경기에 이어 진행된 줄다리기의 승자는 45명이 한 몸처럼 움직인 혁신팀으로, 힘찬 박수를 받았다. 팀마다 20명의 실력자가 참여한 단체줄넘기와 6명이 한 팀으로 손발을 맞춘 단체 계주 역시 환호를 끌어냈다. 달리기와 함께 미션까지 주어진 단체 계주는 보는 이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다. 앞치락뒤치락 달리는 중에도 넘치는 센스로 미션을 수행해낸 선수들도 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두 경기는 창조팀과 혁신팀이 각기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오늘의 열정으로 내일의 발전을 견인

오후까지 계속된 경기가 끝난 뒤에도 심팩인들의 에너지는 여전했다. 무한동력처럼 샘솟는 에너지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소진한 것은 축하 공연이었다. 신나는 노래와 화려한 춤으로 물든 무대에 흥을 감추지 못한 직원들의 기가 폭발했다. 그동안 감춰왔던 실력을 뽐내며 무대 아래로 총출동.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말이 이해지는 순간이었다.

축하 공연에 이은 시상식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혁신팀의 심팩 프레스BU 품질경영팀 김진호 부장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이렇게 전했다. “선수 구성부터 사전연습까지 각 팀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최종우승을 달성해냈습니다. 업무 틈틈이 연습하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안경이 깨지고 발톱이 빠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요. 동료들과 원가를 이루기 위해 같이 노력한 그 시간이 승리보다 값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서로 응원해준 팀원들 덕분에 스트레스도 풀고 더욱 가까워져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심팩이라는 지붕 아래서 가꾸온 장기근속사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10년부터 30년까지 성실히 일해 온 홀딩스 1명, 프레스BU 4명, 메탈BU 4명, 주물 2명, 총 11명의 사원이 상패와 상품을 품에 안았다. 10년 근속상을 받은 심팩 프레스BU 외주관리팀 정진희 과장은 “심팩이라는 회사는 20대에서 60대까지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에 충분한 곳이라 생각해요. 동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심팩에서 젊음을 불태웠으면 합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심팩 프레스BU 기계설계팀 김도영 사원도 자신의 각오를 이렇게 전해왔다. “이번 행사에서 행운권 1등에 뽑히는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고가의 상품에 놀라시는 부모님 모습에 어찌나 뿌듯하던지... 그간 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힘든 만큼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요. 행운권 당첨이 그 과정에 대한 격려는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봤고요. 늘 곁에 있어 준 팀장님과 팀원들이 힘을 모아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웃음) 앞으로도 계속 타 부서와의 협업에 집중하면서 수준 높은 프레스 설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창립 17주년 기념행사의 막은 내려졌지만, 창립 18주년을 향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됐다. 거친 풍랑을 잠재우는 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 보통의 내가 너를, 그를, 또 다른 이를 만나 손잡으면 특별함을 발휘하지 않던가. 심팩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증명된 직원들의 열정으로 내일의 풍랑을 이기고, 백 년 기업을 향한 항해를 이어갈 것이다.

66

창립 17주년, 이 소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경영지원팀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최적의 장소를 찾고자 6번의 답사를 진행하고, 두 달간 행사를 기획했죠. 각 프로그램을 직접 시뮬레이션해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모두에게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랐고요. 그 바람대로 이번 행사에 대한 좋은 평가를 듣고 나니 피곤이 절로 풀리더군요. 또 여러 경기를 통해 심팩인들의 열정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동료가 선배가 후배가 버티고 있으니, 마음 가득한 열정을 버팀목 삼아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합니다.

권성안 대리
심팩 프레스BU 경영지원팀

99



SIMPAC그룹 창립 17주년 기념 어울림 한마당 한눈에 보기!

지난 11월 2일, SIMPAC그룹 창립 17주년을 기념하여 보광산관광공원에서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사원 전원이 참가하여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그 간 심팩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보냈다. 화합의 장이 되었던 체육대회 속 SIMPAC그룹의 빛나는 순간들을 들여다본다.



혁신, 창조, 단합, 행복팀의 입장

체육대회는 심팩그룹의 전체 인원을 고려해 사업부문별 4개의 팀으로 나눠 진행했다. 프레스BU의 혁신팀과 창조팀, 인더스트리/주물/홀딩스가 손잡은 단합팀, 메탈BU/리스팅비즈의 저력을 보여줄 행복팀이다. 4개 팀의 입장으로 운동장을 빨강, 노랑, 초록, 파랑으로 수놓았다.



이제 몸 좀 풀어볼까요?

개회선언과 함께 시작된 첫 경기는 바로 족구! 직장인 족구 고수들의 필살기가 난무한 막상막하 족구경기를 시작으로 체육대회의 열기가 한껏 달궜다.



심팩인들의 단체 먹방!

이제 몸 좀 썼으니 슬슬 배를 채울 시간. 아침부터 시작된 경기와 응원에 힘을 쏟아낸 직원들을 위해 BBQ 파티를 열었다. 게다가 시원한 맥주까지 한 잔! 푸짐한 점심에 직원들의 먹방이 절로 나왔다.



Scene 4

본격적인 한판승을 벌이다

명랑운동회 첫 스타트는 팔씨름. 팔씨름은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눠 진행됐다. 예측할 수 없는 승부 속 특히 남자부 팔씨름은 팽팽한 자존심 대결이었다. 팔 근육이 터지라 경기에 임한 '행복'팀은 남녀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Scene 5

체육대회의 꽃, 릴레이 계주!

심팩그룹의 릴레이 계주는 달랐다. 달리기와 함께 미션까지 주어진 단체 계주는 빅 재미를 주었다. 오리발 신고 달리기, 두발을 묶고 달리기, 찹쌀떡 먹기 등 다양한 미션을 넘치는 센스로 클리어하며 승부를 건 네 팀. 경기 내내 엇치락뒤치락 했지만, 결국 릴레이 계주에서 '혁신'팀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승리를 거뒀다!



Scene 6

모두 다 같이 댄스타임~

오후까지 계속된 명랑운동회를 끝낸 후 축하공연을 준비했다.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무대에 흥을 감추지 못한 직원들의 기가 폭발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말을 심팩인들이 몸소 보여준 시간이었다.



Scene 7

장기근속자 시상

지금의 심팩그룹이 있기까지 물심양면 일해온 직원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10년부터 30년까지 장기근속자에게 표창패를 전달해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우승은 어차피 '혁신'팀!
선수 구성부터 사전연습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종합우승을 거둔 '혁신'팀은 우승 상금 무려 800만 원을 거머쥐었다. 동료들과 원가를 이루기 위해 같이 노력한 그 시간이 승리보다 값지다는 한 사원의 소감은 잊을 수 없는 감동 포인트였다.



Scene 8



Scene 9

다양한 경품이 쏟아진다!

오늘 하루 열심히 즐긴 심팩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 바로 경품 추첨이다. 상품권부터 공기청정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었다. 기대 속에 푸짐한 경품에 당첨된 직원들은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기쁜 마음을 한껏 보였다.



Scene 10

창립 18주년을 향하여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창립 17주년 기념행사의 막이 내렸다. 심팩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 한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은 맞고자 다짐하며, 창립 18주년을 향한 시작을 함께 알렸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소수 정예' 팀원들

심팩홀딩스 ENG 생산관리팀은 '일당백'이다. 철관 구매부터 절단, 가접, 용접으로 이어지는 프레스 구조물 제조 공정과 제반사항을 일사분란하게 챙기고 진행시킨다. 이종서 팀장을 필두로 한 12명의 팀원들은 각기 다른 파트를 맡고 있다. 일례로 박기원 대리는 구매와 절단관리 파트를, 서상철 대리는 공정관리 및 생산관리를 맡는다. 이외에도 공무-품질관리-총무 등 다른 곳에서는 팀 단위로 진행되는 업무를 팀원 개개인이 처리하니, 일당백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팀원 한 명 한 명이 각자 맡은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 ENG 생산관리팀은 늘 바쁘게 돌아간다.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음에도 모두가 다 모이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처럼 커피 한 잔을 두고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꿈만 같다고, 이종서 팀장과 팀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우리 팀 업무 모토는 '현장에 답이 있다'입니다. 관리직이라고 해서 기만히 앉아만 있으면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과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이 같은 괴리는 납기 차질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팀원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수시로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자리에 모여서 티타임을 갖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모이고 보니 정말 좋네요. 앞으로도 짬짬이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이종서 팀장 말마따나 티타임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고였다. 팀원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기득 풀어놓았다. 웃음과 탄식, 조언과 격려가 분주하게 팀원들 사이를 오갔다. 올 7월 입사한 최윤수 사원도 스스럼없이 대화에 동참할 만큼 말랑말랑한 시간. 그 안에서 ENG 생산관리팀 식구들은 실로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했다.

어느 가을 오후, 여유만만 티타임

SIMPAC홀딩스 ENG 생산관리팀

어느 때 같으면 정신없이 보내고 있을 평일 오후, 웬일인지 사무실에 느긋함이 감돈다. 곧이어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종서 팀장이 준비한 커피와 샌드위치가 만들어 낸 풍경이다. 덕분에 SIMPAC홀딩스 ENG 생산관리팀 직원들은 푸근한 마음으로 차 한 잔과 함께 가을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SIMPAC홀딩스
ENG 생산관리팀
이종서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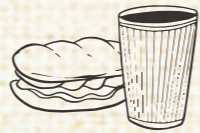
그들을 움직이는 키워드, 소통과 열정

팀 특성상 구성원들이 한데 모이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느 팀을 능가할 정도로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간다. 전화·문자·SNS로 일의 진행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여차하면 상대방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대화하며 협업하기도 한다. 철판 구매에서부터 프레스 구조물 납기까지의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려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팀원들의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제대로 될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말은 일은 다르지만 모두가 ‘프레스 구조물 제조’라는 목표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더욱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업무 프로세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모든 업무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하루 종일 수시로 서로의 상황을 주고받습니다.”

이중서 팀장이 소통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덕목은 바로 열정이다. ENG 생산관리팀의 업무는 프레스 구조물 생산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팀원들의 주요 임무다. 이는 필시 변화를 동반하는데, 현재에 안주하는 업무 태도로는 변화가 찾아오기 힘들다.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이것이 ENG 생산관리팀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열정이다.

“우리 팀원 평균 나이가 35세를 넘지 않더군요. 그만큼 상당히 젊은 조직인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팀원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전에 임하고, 만약 성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업무 자세는 곧 공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죠.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역동성을 느낄 때마다 우리 팀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66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역동성을 느낄 때마다 우리 팀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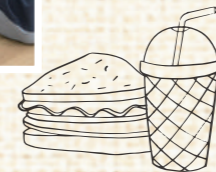
99

회사의 ‘주춧돌’ 역할을 다하다

“우리 팀은 프레스 사업 부문의 ‘수도꼭지’예요.”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서상철 대리가 재미 있는 말을 건넨다.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니 뒷이야기가 이어진다. “철판을 구매해서 프레스에 들어가는 구조물을 만들어 전달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프레스 제작의 시작을 맡고 있구나.’ 저희가 제대로 일을 해내야 완벽한 프레스가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돌려야 비로소 물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어울리는 비유였나요?(웃음)”

사실 ENG 생산관리팀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팀이 아니다. 아니, 주목을 받지 않아야만 한다. 이들이 주목 받는다는 것은 프레스 구조물 생산 공정이나 납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회사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관심 어린 시선의 아래쪽에서 묵묵히 주어진 물량을 소화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 이것이 ENG 생산관리팀의 본질이며 사명이다. 마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주춧돌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ENG 생산관리팀은 생산 공정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팀원들의 자기 계발과 공정 개선 활동은 기본, 포스코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유한요소해석(FEM)과 용접피로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직원들이 보다 정밀하게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용접 교육도 올해 두 차례 가졌다. 팀원들과 서로의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주고받는 문화도 ENG 생산관리팀의 경쟁력이다.

자리이타(自利利他). 이중서 팀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한다”는 뜻의 불교 용어가 답으로 나왔다.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그렇다. 나 자신이 이롭도록, 제대로 업무를 진행해야 동료들과 회사도 함께 이로운 것 아닌가. 더불어 중량물을 다루고 절단, 용접이 이뤄지는 현장인 만큼 ‘안전’을 또 다른 목표로 내세운 ENG 생산관리팀. 그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진다.



서상철 대리

66

같은 사무실을 쓰고 인원도 많지 않은 만큼, 평소에도 팀원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예상치 못한 티타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간 못 다한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의 업무도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99



최동현 사원

66

입사한 지 1년 7개월 정도 됐는데, 여전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 노력할 뿐, 두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선배님들이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때문이죠. ENG 생산관리팀 식구로서 부끄럽지 않은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

자신감, 어디까지 알아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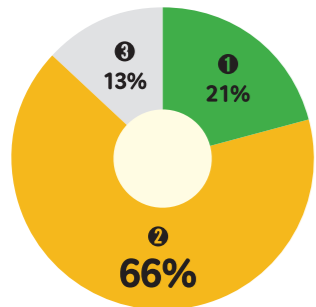
설문기간: 11월 12일 - 11월 15일

수년간의 세월을 거쳐 끊임없이 성장해온 SIMPAC그룹. 우리의 성장은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아가는 심팩인이 있기에 가능했다. 개인의 발전을 돕고 나아가 탄탄한 조직의 기반이 되는 자신감! 과연 심팩인들이 생각하는 자신감은 무엇일까? 본 설문은 총 126명의 SIMPAC인들이 참여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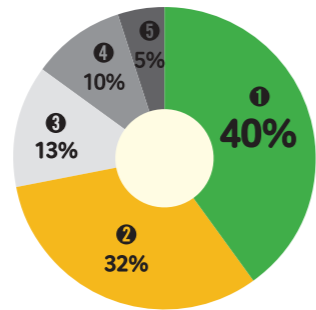


02 당신에게 자신감을 얻게 해주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01 당신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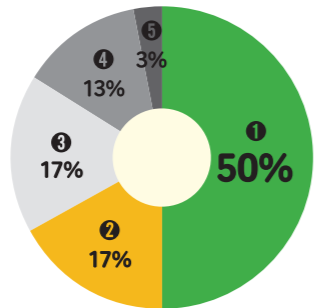


- 1 매우 그렇다 21%
- 2 그렇다 66%
- 3 아니다 13%



- 1 나를 믿고 아껴주는 가족과 동료 40%
- 2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높은 자존감 32%
- 3 자기계발을 통한 꾸준한 성장 13%
- 4 내/외적으로 꾸준한 자기관리 10%
- 5 기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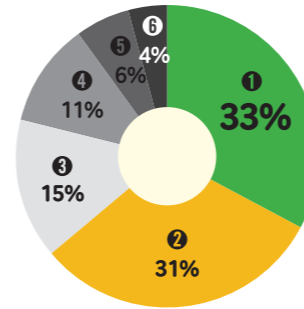
03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1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50%
- 2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17%
- 3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힘이다. 17%
- 4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13%
- 5 기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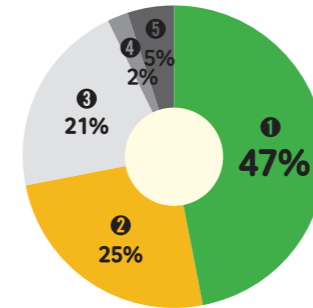
04 회사 생활을 하며 가장 자신감을 느낄 때는?



- 1 조직에서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33%
- 2 업무에서 내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고 느낄 때 31%
- 3 상사와 조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15%
- 4 프로젝트를 완벽히 수행했을 때 11%
- 5 어려움이 있는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줬을 때 6%
- 6 기타 4%



05 일하면서 자신감이 배가 되게 하는 말은?



- 1 격려의 한마디 "잘하고 있어!" 47%
- 2 내게 감사를 전하는 "덕분에 고마워요" 25%
- 3 나를 인정해주는 "역시~ OO씨!" 21%
- 4 작은 위로가 되는 "이거 먹고 힘내요~" 2%
- 5 기타 5%

06 자신감을 되찾고 싶은 심팩인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해준다면?

꿈은 노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노력은 꿈을 가능하게 만든다!

어깨와 가슴에 힘주고 너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어라!

목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가라.

You Can do it!

Carpe Diem



지금까지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야.



네 번째 이야기
뛰어난 내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업무 스킬 10가지

슬기로운
직장생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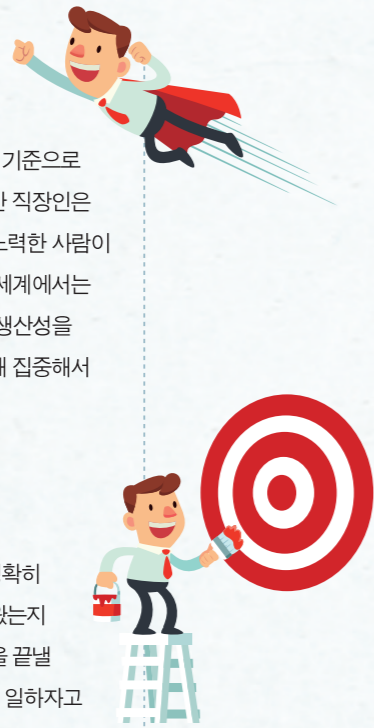
직장생활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더 유능한 것도 아니다. 작은 실수를 통해 크게 배우는 사람, 자잘한 업무를 통해 진지하게 실력을 키우는 사람,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자신의 자치를 높이는 사람이 성공한다. 알면 서도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몰라서 못하는 업무 스킬은 없다. '그럭저럭' 하던 사람에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스킬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

1. 속도가 관건이다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해내어 얼마나 잘 했는지 100점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직장인은 다르다. 직장인은 똑같은 100점짜리 일을 해냈을 때 더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더 빨리 해낸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높은 품질과 비용 절감 못지않게 마감 기한을 잘 지키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 자신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해서 일하고 빨리 마무리하자.

2.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자

직장인이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상사의 업무 지시는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는지 고민해 보자.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일을 끝낼 것인지 목표를 명확히 정한다. 오늘 하루 8시간을 열심히 일하자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 8시간을 일하는 동안 어디까지 해내야 할지를 정하는 편이 좋다.



3.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 되려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보통 5W1H를 활용한다. 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가(Who), 무엇을(What), 왜(Why), 어떻게(How)를 의미한다. 직장인의 프레젠테이션에는 얼마나(How Much)와 목표(Goal)를 포함한 5W2H1G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잘 만든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백 마디 말을 압축한다. 그러나 화면과 화면 사이에 접속사를 제대로 놓자. 접속사를 사용해 화면 사이의 빈 공간을 지배한다면 회의와 협상을 리드하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4. 셀프메일링 활용법

직장인은 보통 상사나 팀원, 거래처 직원, 고객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하자.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업무와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수첩에 적지 말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메일로 기록한다. 업무 중 상사에게 지적받은 사항들도 흘러들지 말고 메일을 보낸다. 주말에 업무와 관련된 제품을 보게 되거나 아이디어로 활용 가능한 뉴스를 보게 되면 놓치지 말고 셀프 메일링을 하자. 무수한 기록이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남는다.

5. 체크리스트를 만들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능력의 30%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상사에게 배운 업무 방법, 책에서 읽은 효율적인 방법, 자주 쓰는 업무 스킬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자. 예를 들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자'라던가 '명확하고 큰소리로 말하자'라는 항목을 점검한다. '보고서 체크리스트'에는 '오탈자를 확인하자'부터 '제3자의 발언을 인용하자'까지 넣어둔다.

6. 월요일에는 업무 강도를 높인다

월요일을 극복하기도 힘든데 업무 강도를 높이면 대부분 고개를 젓기 일쑤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말 동안 잃었던 업무 페이스를 되찾으려고 월요일 오전에 흐지부지 보낸다. 주5일 근무제로 일하는데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를 대충 보내면 결국 주4일 근무와 다를 바 없다. 의도적으로 월요일 오전의 업무 강도를 높이고 집중하자. 일주일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7. 실적의 차이는 실행력에서 나온다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요인은 실행력의 차이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좋은 실적을 내려면 정해진 일을 확실하게 시작하고 끝맺는 실행력이 필요하다. 실행력은 정해진 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수하는 능력이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실행해야 하는지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자.



8. 상사를 다루는 방법을 공부하자

비즈니스 스킬과 관련된 말 중에 "Managing your boss."라는 말이 있다. 상사를 관리하라는 뜻이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양식을 갖출 것인지에 따라 자료 수집을 하는 시간이 달라진다. 상사가 보고서를 이용해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든다. 상사의 의중을 확인하고, 꼭 해야 할 일이나 꼭 넣어야 할 자료가 있는지 묻고, 명확하게 일을 진행하자.

9. 변명은 금물!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유독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안되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변명한다는 점. 그들은 시장환경, 경쟁사의 상황, 자사의 강점과 약점, 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무수한 정보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실패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결과가 좋은 나쁜 것조차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자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 기회가 있다.

10.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주변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고마워하는 마음은 주변을 관찰하는 눈을 길러준다. 키워주신 부모님을 비롯해 밀어주고 끌어준 동료와 선배, 상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자.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주변의 협력을 얻기 쉽고, 자신이 잘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진심으로 주변에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안다.

짧지만 알찬,

우리들의 대만 여행기

사진/글 제공: SIMPAC 프레스BU 외주관리팀 이예진 사원



여름호 워라벨 프로젝트에서는 '여름휴가' 특집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꿀 같은 휴가를 보낸 심팩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마지막 워라벨 프로젝트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확실한 행복을 얻는 '여행'을 다녀온 심팩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워라벨 프로젝트의 주인공, 이예진 사원의 대만 여행기를 함께 공유합니다.

Chapter 1 짧은 여행의 시작을 알리다

지난 여름휴가 때 다녀왔던 대만이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취소된 몇 일정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올해 11월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대만으로 떠났다. 새벽 1시에 도착한 대만의 타오위안 공항. 약간의 습한 공기가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겼다. 24시간 운행하는 국광버스를 타고 타이베이 역까지 40분 동안 한적한 대만 거리를 구경하며, 택시로 10분을 더 달려서 숙소에 도착했다.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숙소 옆 편의점에서 대만 사람들이 간단히 즐겨먹는다는 차계란을 사서 맛보았다. 우리나라의 장조림 계란과 비슷하네 약간의 향신료가 첨부된 맛으로 간단히 배를 채우기에 제격이었다. 생각보다 덥지 않은 날씨에 설렘을 가득 안고 우리의 짧은 1박2일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Chapter 2 일상을 떠나,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다



제일 먼저 대만의 초대 총통이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히는 '장제스'를 기리는 건축물인 '중정기념당'으로 향했다. 웅장하고 늠름해 보이는 중정기념당을 향해 오르는 계단은 장제스가 서거한 나이인 89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단을 올라가서 바라보는 중정기념당 앞에 펼쳐진 자유광장의 탁 트인 모습은 바쁘게 살며 힘들었던 일상을 잠시 잊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아침에 방문하였지만 중정기념당의 핵심은 바로 야경이라고 하니 만약 중정기념당에 간다면 저녁에 방문하는 것을 더 추천하고 싶다. 점심은 대만에서 유명한 휘귀 집 중 한 곳인 '황자아 휘귀'에서 해결했다. 모든 음식재료, 음료, 후식을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만큼 우리나라 입맛에 맞춰진 휘귀 국물도 있어서 현지의 휘귀를 거부감 없이 맛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 재료의 종류가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정말 싱싱하다. 만족스럽게 식사를 끝내고 '예류지질공원'으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동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우비를 입고 비를 맞으며 다니는 것조차 색다른 경험이었고 바람과 함께 어우러져 시원하기까지 하여서 오히려 비 온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다.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바위와 바닷가를 바라보니 마치 과학 책에서 보던 사진 속 공간에 와있는 듯해서 매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유명한 하트 모양의 바위와 여왕의 머리를 닮은 여왕머리바위에서 빠질 수 없는 포토타임을 가지며 영원히 남을 추억을 저장하였다.



Chapter 3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얻다

해가 질 무렵 도착한 '스편'은 많은 풍등이 하늘에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는 철도 길에서, 훑날리고 있는 풍등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곳만큼은 꼭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들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각자의 소원을 적은 풍등을 날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살면서 바라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게 의미 있고 값지다고 느꼈다.

끊임없이 하늘로 떠오르는 사람들의 소원을 보면서 스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길거리 음식인 닭날개 볶음밥과 땅콩 아이스크림을 맛보았다. 평범한 맛과 비주얼이지만 스편의 분위기 덕분에 더 맛있게 느껴진 것 같았다(웃음). 철도길 따라 쪽 늘어져있는 가게에서 파는 기념품을 구경하는 즐거움도 있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완전히 깜깜한 밤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관광지인 '지우편'으로 향했다.

지우편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된 곳이다. 건물마다 내걸린 홍등 덕에 가파른 계단과 좁은 골목들이 매우 운치 있게 보인다. 해가 지고 홍등에 불이 켜지면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옥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지만, 우리가 갔을 땐 비가 많이 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었다. 홍등에 비추는 붉은 골목들과 비가 어우러진 멋진 분위기 덕에 마치 내가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았다.

골목 계단을 내려가다가 입구에서 반겨주는 고양이와 있는 카페로 들어갔다.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 카페였는데 고양이가 애교가 많아서 의도치 않은 힐링을 하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졌다. 고양이의 애교 때문인지 아니면 마지막 장소라서 그런지 숙소로 쉽게 발걸음을 떼기 어려웠다.



Chapter 4 행복한 기억으로 여행을 마무리하다

이렇게 지우편을 마지막으로, 계획한 여행은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다.

혹시나 이 글을 읽고 대만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린다면, 각 관광 명소 사이의 교통이 좋은 편이 아니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카풀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택시기사와 같은 목적지인 사람들을 찾아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한 사람당 8,000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하니 편하면서 빠르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우리도 이번 여행에서 카풀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멀어지는 대만의 야경을 보며 끝이 난 이번 여행은 한순간의 꿈을 꾸 것처럼 행복한 기억으로 남은 1박2일의 짧은 순간이었다.



마지막 위라벨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끝으로 지금까지 심팩인들이 어떻게 일과 삶 사이를 조율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자신만의 위라벨을 찾아가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짧은 여행 또는 잠깐의 문화생활도 위라벨을 맞춰나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언제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과 삶 사이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다양한 위라벨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보내는 편지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형제자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1팀 언니 김다희 사원 + 동생 김도희

안녕 도희야!

부모님한테 편지는 썼어도 동생한테 편지 쓰는 건 처음인 거 같네.

같이 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 챙겨준 거 같아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가족에게 편지 쓸 기회가 생겨서 쑥스럽지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볼게. 이제 곧 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준한다고 요즘 바쁘지? 나도 다 겪었던 일들이라 앞으로 취준하면서 준비할 것들도 많고 막막하고 힘들 거라는 걸 알아서 마음이 짠하기도 해.

가족이 제일 가깝고 비밀이 없을 것 같아도 살면서 정작 고민이 생기거나 어려울 때면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오히려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했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 힘들거나 고민 있을 때 나한테는 꼭 털어놔으면 좋겠어~

또 자매다 보니 같은 여자이기도 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 진짜 자매만의 장점인 거 같아. 점점 커가면서 좋은 친구 같아서 든든해~

회사 때문에 처음 부평으로 이사 왔을 때 마침 너도 학교가 이쪽 근처라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외롭지 않게 잘 적응하면서 지내는 거 같아. 아직도 가끔 사소한 걸로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 지나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잘 지내는 거 보면 참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랑 똑같아(웃음).

내가 말은 안 해도 우리 동생 많이 믿고 항상 의지하고 있어. 취준하다가 힘들고 스트레스받을 때 바로 말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용돈도 종종 줄게!

항상 응원한다 내 동생 파이팅~!



To 亲爱的姐姐, 다희언니에게

언니 잘 지내고 있나~~? 나 없는 집이 춥고 쓸쓸하진 않고? 하하하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언니한테 편지 쓰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네..! 올라오는 닭살들을 누르고 감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편지를 써볼게!

올해 언니랑 둘이 자취하면서 전보다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서로 일상에 대해 많이 주고받은 것 같아서 솔직히 재밌었어ㅎㅎ 20년이나 넘게 한 집에 살아왔지만 둘 다 성인 되고 난 이후에는 집에 오면 방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 은근히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서로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언니도 알다시피 내 성격이 많이 예민한데 같이 지내면서 많이 맞춰줬던 것도 고맙고, 언니 보면서 나도 예민한 성격 좀 고치려고 다짐했어! 물론 아직 실천 중이지만.. 같이 지내면서 항상 내가 늦게 자는 거 때문에 불편했을 때도 있지만 별다른 내색 안 해주고 잘 지내줘서 진짜 진짜 고마워~

요즘 졸업을 앞두고 언니가 일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이랑 지내는 모습 보면서 나도 언니처럼만 사회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언제나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잘 대하는 게 언니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물론 언니도 티 내지 않은 고민들이 많겠지? 나도 이제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더 많이 공감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의지해주자!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가끔 중국에 놀러 가기도 하고! 이제 따로 살아서 자주 못 보더라도 엄마, 아빠한테만 연락하지 말고 동생도 챙겨라~~ 뭐 사랑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럼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다녀!!

From 귀염뽀짝한 동생 도희가



SIMPAC홀딩스 ENG 생산관리팀 송희영 선배님께

제가 입사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선배님을 뵈지만 막상 편지를 써 내려가려니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입사하자마자 사고뭉치였던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챙겨주신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어색하고 어려웠던 제 신입사원 시절을 무탈히 보낼 수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업무에 완벽해질 때면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늘 죄송스럽고 또 감사드려요.

항상 깔끔하게 업무를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도 선배님처럼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지만 차분히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SIMPAC홀딩스 ENG 생산관리팀 김유림 사원 드림



SIMPAC홀딩스 ENG 생산관리팀 김유림 사원에게

유림 씨~ 깜짝 선물과 편지는 잘 받았어요(웃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도 몰랐는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막상 신입사원을 들어온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누구보다도 힘들고 걱정이 많았을 텐데

항상 밝은 얼굴로 얘기하고 회사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

앞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거리 있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언제나 우리는 유림 씨를 응원하고 있으니 항상 힘내고!

그럼 유림 씨도 남은 한 해 잘 보내고, 언제나 행복하자!

응원의 마음을 담아,

SIMPAC홀딩스 ENG 생산관리팀 송희영 선배가

올 한해 심팩인들은 '편지왔습니다' 코너를 통해 평소 고마움을 전하고 싶거나 칭찬해 주고 싶었던 직장 동료 혹은 선배에게 편지를 통해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보를 통해 즐거운 추억이 되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더 많은 심팩인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으로 말해요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가을의 추억을 떠올리다'를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인천 개항누리길을 다녀오다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정준수 사원

가을의 정취와 이국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유공원과 개항누리길을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자유공원을 산책하며 가을을 끝을 알리는 알록달록한 단풍을 보면서 마음이 힐링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항누리길에서 차이나타운 쪽을 향하면 중국을 온 것 같고 개항누리길 근대화거리를 거닐면 일본을 온 것 같았습니다. 심팩인 여러분도 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 다양한 인천 개항누리길을 한 번 다녀와보세요! 하루에 꼭 돌아보기에 좋은 코스랍니다~



가을밤, 아름다운 불꽃으로 수놓다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1팀 남윤기 사원

이번에 저는 매년 여의도 밤하늘에 환상적인 불꽃을 선보이는 '한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다녀왔습니다. 항상 TV 속 많은 인파들을 보며, '도대체 누가 저런 복잡한 곳을 찾아가서 봐'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웃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처음에는 착잡한 기분이었지만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난 뒤 평평 터지는 불꽃들에 설레는 마음과 잊지 못할 추억의 한순간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SIMPAC STORY '사진으로 말해요' 코너에서 SIMPAC인들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매 호 다양한 주제에 맞춰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보내준 SIMPAC 그룹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년 사보에서도 여러분의 더욱 재미있는 일상을 기대해봅니다.

sweet memories

happy moments



CONGRATULATIONS!



결혼을 축하합니다 HAPPY WEDDING

2018년 10월 13일
SIMPAC 프레스BU 조립1반 황지훈 선임



우리가 결혼을 했더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 처음 연애했던 그 설렘처럼 앞으로도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행복한 일만 가득 했음 좋겠다. 내가 더 잘할게. 헤림아 평생토록 사랑해♥

첫 생일을 축하합니다 1ST BIRTHDAY

2018년 10월 20일
SIMPAC 프레스BU 외주관리팀 박정호 대리 아들 박연호 군



사랑하는 아들, 연호야! 네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아들이, 네가 너무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아빠는 너무 대견스럽고 고맙단다. 아빠는 네가 우리 가족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너무 커다란 복을 받은 것 같아. 연호야, 이제 곧 걸음마도 하고 "아빠, 사랑해" 라고 말도 하게 되겠구나. 상상을 하니 벌써 아빠는 너무 기대되고 기쁘단다.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아빠는 항상 너를 향해 웃어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구나. 우리 아들, 항상 밝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주렴. 연호야~ 첫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